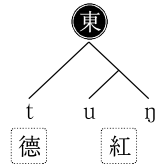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11

조선 시대 역관들에게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이 중요했다.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韻書)에서 한자음을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이를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반절법을 사용했다. 아래 그림처럼 한자 ‘東’(동)의 발음을 중국의 운서에서는 반절법에 의해 ‘德’(덕)의 초성 [t]와 ‘紅’(홍)의 중·종성 [uŋ]을 이용해 표시했다. 이때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 ㉠ 이러한 발음 표시 방식은 조선의 역관들이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했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 『사성통해』에서는 한자 ‘東’의 발음을 한글 [동]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표음성을 이용해 중국의 한자음을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반절법과 달리 한자의 발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으로, 이때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별도의 발음 기호가 없었던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발음 기호와 완전히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의 발음 기호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 문자와 발음 기호가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알파벳에 비해 표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경우에도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는 언어의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 이를테면 ‘부부[pubu]’의 경우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 [p]와 유성음 [b]로 발음하는 것을 음소적 차원에서는 모두 ‘ㅂ’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가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ㄱ’, ‘다도’의 ‘ㄷ’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한글의 표음성은 국어 화자들의 ‘예민한 귀’보다는 ‘지혜로운 머리’에 맞춰진 합리성을 보여 준다.

4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를 이용해 표시했었다.
- ②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
- ③ 조선 시대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
- ④ 조선 시대 한글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했다.
-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41. ㉠의 이유를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절 표시에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읽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②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 ③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 ④ 동일한 한자의 반절 표시에도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 ⑤ 두 한자의 발음을 조합해야 전체 발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일반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A: [고 궁 이 크 다]  
B: [ko guŋ i kʰi da]

- ①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되는군.
- ②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하는군.
- ③ A의 ‘ㄱ’은 B에서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은 같은군.
- ④ A의 ‘ㅇ’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군.
-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은군.